

수 있다. 즉, Kuhn 自身이 그 개념을 많은 다른 意味를 가지고 使用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는 點이다. 또한, Kuhn의 주된 分析의 對象이 自然科學分野였다는 點에서 그의 理論이 社會科學의 現實을 담는 데 無理가 있으리라는 의구는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 점에서 역시 社會學者들이 나름대로의 판단이나 편견에 따라 社會學의 現實을 수용하는 데 편의하다고 보는 方向에서 여러 다른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덧붙여 이 문제와 關聯하여 發表된 연구결과들의 大部分이 어떤 경험적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다기보다는 直觀的인 結論과 그러한 結論을 수식하는 데 일관하고 있다는 點으로 보아 社會學者들 간의 異見을 초래하고 있는 要因으로서 실증적인 검증의 문제 역시 배제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學者들 간의 견해의 差異의 상당한 부분은 社會學의 主潮를 形成하고 있는 paradigm 또는 paradigm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적인 분석을 통해 조사해 봄으로써 해소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상에 든 문제점들 가운데 개념의 모호성에 關한 問題는 Kuhn 自身이 그의 著書의 증보판(1970년刊)에서 시도한 해명을 통해 어느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보겠다. 따라서 문제점으로 남는 것은 우선 다음과 같이 진술될 수 있다. 自然科學分野와 現實을 달리하는 社會學의 性格을 收容하기 위해 paradigm의 개념에 어떤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必要性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具體적으로 어떠한 方向에서 그러한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 問題에 關하여 社會學은 Kuhn이 말하는 <正規科學> (normal science)로서보다는 Masterman이나 Ritzer가 주장하는 바대로 <複數paradigm科學> (multiple paradigm science)의 次元에 머물고 있다는 데에 異議를 提起하는 學者들은 드문 듯싶다. 그러나 이렇게 수정된 次元에서의 paradigm의 개념이 社會學의 현실을 훨씬 적절하게 수용하는 것이라고 일단 수궁을 하더라도 과연 社會學에 있어서의 研究活動으로부터 社會現象에 對한 一般的 觀點(general orientations), 이보다 좀 더 具體적인 說明의 體系로서의 <理論> (theory), <方法論> (methodology), <研究技法> (research techniques) 및 <研究例> (exemplars) 등의

여러 요소들이 논리적으로 연관이 되어 이루어진 어떤 전체적인 복합단위가 실제로 식별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가는 경험적인 검증에 의해서야 해결될 수 있는 과제로 남게 된다.

이에 덧붙여 지적되어야 할 것은, 여러 社會學的인 觀點들의 相互補完性을 주장하거나 선택적이며 부분적인 收容을 주장하는 社會學者들이多數를 點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많은 社會學者들은 어떤 정해진 觀點의 옹호자라기보다는 객관적 평가자 또는 비판자로서의 위치를 擇하는 傾向을 보인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社會學的인 paradigm의 地位는 과연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가? 또한 이에 앞서, 社會學의 性格을 <paradigm의> 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의문과 과제들은 社會學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Kuhn의 理論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政治心理學 理論의 Paradigm의 地位

高麗大 行政學科 李 宗 范

본 論文의 목적은 정치심리학 이론들의 Paradigm적 지위를 음미해 보기 위한 것이다.

첫째, 정치심리학 이론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1)정신분석 이론과 인간주의심리학 이론, (2)학습이론, (3)태도 이론과 (4)동기 이론 등을 차례로 그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둘째, 종합적으로 그 Paradigm적 지위와 사회과학에 있어서 Kuhn이 의미하는 정상과학, Paradigm의 의미도 아울러 재음미하려고 한다.

小理論 중심으로 정치심리학 이론의 Paradigm적 지위를 음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사용한다.

(1) 說明—理論의 評價基準으로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예측의 精確性 (Accuracy), 一般性 (Generality), 簡潔性 (Parsimony or Economy), 因果性 (Causality)

(2) 概念의 定義와 관련되는 一般性과 精確性 및 그 測定上으로 나타나는 妥當性의 隔差 (Validity Gap)

(3) 理論의 分析單位 (Units of Analysis)와 測定單位 (Units of Measurement) 간의 차이로 생기는 推定上의 妥當性

(4) 주요문제제기가능성 (Puzzle-Generating

Possibility)

(5) 주요 문제들의 해결능력 (Puzzle - Solving Ability)

(6) 政治心理學 教育에의 공헌 정도

2

앞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정치심리학의 소이론들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추출하여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개념의 정의나 그 측정상 나타나는 타당성의 문제이다. 자연과학에서와 같은 기본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또한 이를 측정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론들 간의 체계적인 연결이 약한 상태에 있다. 즉 개념의 추상화 정도에 따라서 그 하위개념이 있고 보다 구체적인 개념의 형성이 가능하다면 이론의 체계화는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러한 면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측정상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관찰, 질문지-면접방법과 투사방법 등이 있으나, 관찰이나 질문지·면접 방법의 경우는 신뢰성이 높은 자료는 수집할 수 있지만 피상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심층심리를 측정하기 위한 투사방법(예, T. A. T.) 같은 경우는 자료 추정상의 편견 개입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측정된 내용이 실제의 개념을 대표할 것인가 하는 타당성 격차(Validity Gap)의 문제로 압축된다.

나아가서 측정에 있어서 尺度의 문제 또한 심각한 것이다. 아직까지 인간의 심리적 사실을 측정함에 있어서 가정된 것 이외에는 등간척 척도나 비율 척도에 의한 측정은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한계점은 가설의 검증의 한계가 모호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즉 가설의 검증(test)과정에서 경험적 진위를 파악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다른 정치이론들에 비해서 정치심리학 이론에 있어서는 분석단위의 문제가 더 많이 제기된다. 그 이유는 이론의 분석단위는 일치하여야 하며, 따라서 측정단위와 분석단위가 불일치함으로써 많은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정신분석이론이나 학습이론의 경우에는 설명하고자 하는 변수와 설명되는 변수가 다 개인이기 때문에 그 분석단위는 개인이다. 또한 측정도 개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론들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분석단위가 집단이 되는 경

우에는 그것과 측정단위가 불일치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動機理論과 態度理論에서 주로 나타난다. 즉 설명하는 변수의 측정단위는 개인이고 설명되는 변수의 측정단위는 집단일 때에는 -반대의 경우일 때도 마찬가지임 -불가피하게 측정단위를 이론의 분석단위에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집합-분화과정(Aggregation - Disaggregation)이 필요불가결하다. 그러나 이러한 집합-분화에 관한 것은 일정한 규칙이 없다는 것이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단순집계의 방법이지만 그것이 옳다는 보장도 없다.

세째, 각 분야에 제시된 설명형태나 이론들이 단순한 共變關係(Covariation)의 표현이거나 또는 가정된 인과관계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독립-종속변수, 내생-외생변수 자극-반응변수 등의 구분이 이러한 현상을 잘 나타내는 것이다. 나아가서 사회과학, 특히 정치심리학 분야의 이론들은 자연과학과 같은 함수관계로 표시되지도 않으며, 또한 회귀방정식에 의해서 이러한 관계가 표시된다고 해도 상수(Parameter) 자체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 단순히 관계의 유무를 파악하는 데 그칠 뿐이다.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이론의 평가기준인 정확성이나 인과관계의 면에서 그 기준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네째, 정치심리학의 소이론들, 예컨대 정치사회화, 정신분석이론(Lasswell, George/George Erikson), 권위주의, 소외, 불화감소, 욕구불만-공격이론, 상대적 박탈감, 교환이론, 준거집단, 성취욕구, 자아실현 욕구 이론들은 정치심리학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간의 상호통합가능성은 현재 없는 것으로 보이며, 한 이론이 나오고 그것이 다른 이론으로 대체된다고 보다는 공존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앞에서 논의했던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다분히 교시적인 소이론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동일한 현상이 상이한 개념이나, 더 극단적인 경우는 상반된 개념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극단적인 예는 정신병리적 측면에서 elite의 형태를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자아실현 욕구의 표현으로서 설명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예를 들면, 상호 모순되는 두개의 Luther에 관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사후설명적인 경

우에 심하고, 따라서 예측가능성에서는 많은 제약점이 따르게 된다. 잘못하면 Pseudo-puzzle 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즉 문제해결에 있어서 전혀 상반되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정치심리학 이론 전체로서 체계적으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기보다는 각 소이론 별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뿐이다.

여섯째, 상반된 문제해결책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정치학교육에 있어서 상반된 교육기능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이론들은 서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학 교육에도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3

그러면 정치심리학의 소이론들이 갖고 있는 Paradigm적 지위는 어떠한 것인가?

Kuhn이 제시한 Paradigm의 세가지 의견 중에서 첫째인 Metaphysical 한 성격의 각도에서 보면 정치심리학 분야는 크게 4가지 범주의 Paradigm이 있고 그것은 유기적으로 잘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Kuhn이 제시한 Paradigm의 두번째 의미인 Exemplar적 성격을 제외한 Disciplinary Matrix의 성격, 특히 Sociological Paradigm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일반법칙이나 설명의 각도에서 보면, 큰 분야별로 소이론들을 체계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법칙이나 일반화는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정확성·인과성·간결성·일반성의 면에서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각 소이론들 속에는 이러한 요소가 있다. 특히 소이론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에는 학습이론만이 비교적 잘 해당될 뿐이다. 그러나 이것도 정치심리학 분야에서는 주로 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Kuhn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세번째 유형인 예題(Exemplar)로서의 Paradigm개념에 비추어 보면 정치심리학 이론 전체나 혹은 분야별 이론들이 Exemplar의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소이론들이 Exemplar의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교육적 측면에서는 전체가 동시에 정치심리학이론으로 포함되겠지만, 전문연구를 위해서는 분야별 소이론들이 Exemplar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政治心理學 이론의 개개의 소이

론들이 Kuhn의 Disciplinary Matrix(Exemplar 포함)로서 Paradigm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정치심리학 이론의 전반적인 상태는 Masterman이 제시하는 Multi-paradigm의 위치에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또한 각 소이론들이 갖고 있는 예측의 정확성·인과성·간결성·일반성의 정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이론들은 Paradigm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다는 좀 더 낮은 Metaphor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Landau, 1972, pp. 221-222)

이와같이 정치심리학 이론의 Paradigm적 지위를 Multi-paradigm 또는 Metaphor로 규정하고 나면 Kuhn의 과학사관의 가장 핵심이 되는 과학Paradigm의 혁명적 변화의 문제는 자명해진다. 정치심리학에서 Paradigm의 급격한 변화는 찾아볼 수 없고, 또한 정치심리학은 Kuhn의 정상과학이라는 용어에 의해서도 규정할 수 없다. 즉 소이론들이 계속적으로 추가되고 이것이 정치현상의 설명에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는 정상과학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특히 기존에 있는 소이론들에 입각하여 사실의 확인·검증·이론의 수정활동이 계속된다는 면에서는 그러하다. 그러나 공통적 Paradigm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정치심리학 이론을 Kuhn의 정상과학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1969년 D. Easton이 그의 정치학회 회장 취임 연설에서 Post-behavioralism을 주장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1979년 Wahlke가 정치학회 회장 취임 연설에서는 Pre-behavioralism을 주장하고 있어 재미있는 대조를 이룬다.

쿤의 생각과 言語理論

서울大 言語學科 李 廷 玟

이 논문은 (1) Kuhn의 과학사술에 대한 생각에 언어이론 쪽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2) Kuhn의 과학사술방식이 언어학의 발전에 얼마만큼 맞아 들어가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Kuhn은 그의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의 서문에서 언어가 세계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생각한 Whorf의 글을 읽었다고 밝힘으로써 영향관계를 시인하고 있다. Sapir-Whorf의 가설에 따르면, 사람의 사고는 습관적으